

産 · 學 · 研이 共存할 수 있는 體制로

안 우 회

(한국전기연구소장)

나는 우리나라가 10년후인 2000년에는 先進國이 되어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 지난 1962년부터 수행된 經濟開發 5個年 計劃도 벌써 第6次에 이르고 있다. 이 經濟計劃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의 第1次 産業中心에서 기술집약의 第2次 産業으로, 그리고 이제는 선진국의 경제패턴인 第3次 産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西獨이 第2次 世界大戰의 敗亡을 딛고 「라인江의 奇蹟」을 이루어 全世界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勤勉을 모토로 「漢江의 奇蹟」을 이룩하고, 나아가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세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韓國民의 優秀성을 世界에 誇示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一致團結하여 「해 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한데서 얻어진 것이다.

大韓電氣學會는 지난 1947년에 設立된, 43년이란 오랜 歷史를 가진 傳統있는 學會다. 자칫 요즘 尖端 産業이라 할 수 있는 電子·通信分野에 가려지는 듯한 인상을 받을 지 모르나 우리나라 發展의 原動力이 되어 왔던 電氣關聯 産業界와 學界등에서 電氣學會와 인연을 맺지 않은 人士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電氣學會는 우리나라 電氣産業은 물론 國民經濟에 깊은 影響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다.

電氣學會는 이제 한 世代를 보내고 새로운 40년을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40년에는 2000년대란 거창한 時代가 놓여져 있다.

每月 學會誌와 論文誌의 發刊을 통해서 國內의 學

界, 業界, 研究界 등에 電氣關聯 技術의 普及에 이바지하고 있음은 물론 政府의 關聯 機關에도 政策立案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電力系統研究會 등 11個 專門研究會는 學術大會 등을 수시로 開催하여 先進國의 技術開發動向에 대한 分析, 研究로 우리의 對應 方向을 提示해 주고 있다. 특히 深度있고 詳細하게 特定分野技術을 特輯으로 다룬 特輯號를 자주 發刊함으로써 關聯技術의 波及效果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새로운 世代를 맞고 있는 電氣學會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大韓電氣學會가 우리 나라의 여러 學會 가운데 가장 先導의이고 活動의인 模範團體로서 2천년대의 位相을 定立하기 위해서는 會員 모두가 自負心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바람직한 電氣學會像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産·學·研이 共存繁榮할 수 있는 體制로 學會가 운영되어야 한다.

學會가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偏重되어 운영된다면 多元化되고 복잡해져 가는 2천년대 電氣産業分野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學會가 活性化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學會 중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진 學會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지 모를 위험성이 있다.

반드시 先進國 學會의 운영을 본받을 필요야 없겠지만 그들의 學會活動이 産·學·研에 동시에 도움

이 되며, 특히 國民經濟 發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 그 제도를 원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理論을 研究 및 開發活動에 接木시키고, 여기서 얻은 살아있는 지식을 現場에 접목시켜 나간다면 電氣學會는 國民經濟 發展에 큰 기여를 하게 되고, 會員들은 電氣學會에 참여하는 것에 크나 큰 자부심과 보람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理論과 現場 사이에는 乖離가 있기 마련이다. 大學의 理論과 企業·政府出捐 研究所의 現場을 한데 어우러지게 하여 상호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교량 역할을 電氣學會가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企業과 研究所를 조화시킨 가운데 公害問題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며, 電氣需要의 증대는 물론 電氣機資材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는 電氣鐵道와 磁氣浮上列車

등 先進國型 交通시스템의 조기 채택을 電氣學會가 선도적으로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學會가 학문의 연구를 活性化 해 나가면서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國民弘報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大韓電氣學會가 2000년대의 바람직한 像을 만들기 위해서는 技術專門分科委를 細分化, 活性化해 나가야 한다. 학문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으로 연결된다면 이야말로 錦上添花이다. 學術活動을 통해 학문의 발전과 國民經濟 增進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使命感을 가지고 일로매진함으로써 產·學·研을 共同體化 하는 體制確立에 주력한다면 大韓電氣學會는 2천년대의 바람직한 이미지로 영원히 發展될 것이다.